

시지정 문화재(유형·조각)

1971년 3월 5일 지정

소유자: 조후쿠지 절

목조 성관세음보살 입상

조후쿠지 절은 헤이안 시대 중기에 조초가 만든 관음상을 모신 불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문헌에 따르면 에이로쿠 연간(1558~1570)에 나쓰미 가가노카미 마사요시라는 사람이 '옛날에 절을 건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승려인 구잔을 맞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자 1649년에 제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로부터 관음당 영지로서 5석의 땅이 하사되었습니다.

목조 성관세음보살 입상은 높이가 56.8cm이며, 연꽃 받침대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감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소용돌이 무늬 광배를 지니고 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가슴은 영락으로 장식되어 있고, 옥안 백호에는 수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색창연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겐로쿠 시기의 보수 때 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꽃 받침대, 감실, 광배는 겐로쿠 11년(1698년)에 다시 보수되었습니다.

1990년에 실시된 해체 수리 과정에서 태내묵서명이 발견되어 덴분 5년(1536년) 작품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명문에 의하면 작자에 대해서는 '불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고, 기증자는 '나쓰미 도시마 가게유사에몬노조 다이라노아손 다네사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불상은 그 자체로도 뛰어난 작품이며, 태내명은 이 지방의 전국시대 중기 상황을 해명하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불상은 비공개이지만, 50년에 한 번씩 공개됩니다.

조후쿠지 절은 중세 나쓰미 성터의 일부에 해당하며, 절 뒤쪽으로는 성의 토루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 1월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